



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나,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3.15. 서울신문은 「‘최대 20조’ 추경안, 이달 신속 제출... 에너지 바우처 등 추진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추가경정예산은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20조원 안팎의 규모이며, 법인세 신고·납부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정부는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유가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,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 - 다만,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,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	담당자	사무관	박근형 (rmsgukorea@korea.kr)